

2022 April

Hana

Market Monthly

연구위원 서정훈
Tel. 02-729-0195
seojh@hanafn.com



목차

I. 금리	3
I. 달러/원 환율	5
III. 엔/원 환율	7
IV. 유로/원 환율	7

금리

3월 동향

전쟁 이슈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이 글로벌 인플레이션 급등을 자극하며 연준의 매파적 50bp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인 측면이 국내외 금리 급등세에 영향을 줌에 따라 국고채 금리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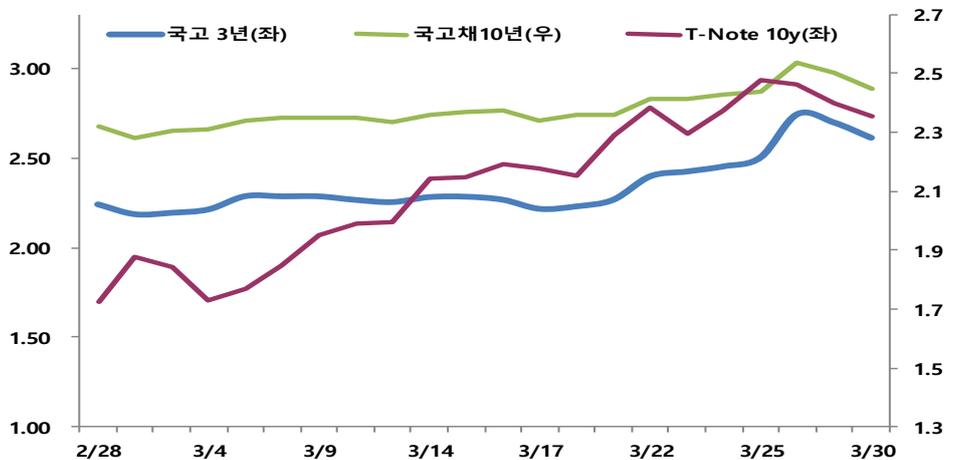
우크라이나 관련 국제유가 상승과 연준의 3월 금리인상 가능성 증대 등이 국고채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가능성 전망 등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3월 FOMC가 매파적이었음에도 25bp 금리인상이 다소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지며 금리 상단 제한

연준의 잇단 50bp 금리인상 언급 속에 대내적 추경 이슈 등이 급등세를 강화

- 3월 초, 우크라이나궤 안전자산 선호 요인에도 연준의장의 3월 금리인상 지지 언급 등이 완만한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 후, 국제유가 상승과 국고채 공급 확대 요인 등으로 급등세
 - 3월 초, 우크라이나 이슈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1월 경제지표 부진 등이 금리하락 견인하며 출발
 - 이어 연준 의장의 3월 금리인상 시사 속에 대내 수급적 국고채 공급 확대 등으로 상승 전환 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협상 진전이 없는 가운데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 압력 등으로 급등세를 보임
- 중반, 미 2월 CPI 급등에도 전쟁 장기화 불확실성 증폭이 안전자산 선호에 영향을 미친 가운데, 3월 FOMC가 다소 매파적이었음에도 25bp 인상에 머물며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된 측면 또한 금리 상단을 제한
 - 중반, 미 2월 CPI의 급등에도 전쟁 장기화 우려 속에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에 하락 전환
 - 3월 FOMC에서 25bp 금리인상과 5월 양적 긴축 시사 등 다소 매파적 시사에도 시장 예상에는 다소 부합되었다는 점이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여진 가운데 국고채시장에서의 대기 매수세 유입 등으로 하락 지속 후 수급 공방 속 등락 시현
- 후반, 연준 의장과 위원들의 연일 쏟아낸 50bp 금리인상 시사 및 추경 편성 이슈 등으로 급등세 나타내다 우크라이나 합의 도출 기대 등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줄인 점이 국고채 시장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하락 전환 흐름 속에 마감
 - 후반, 연준의 인플레이션에 대응한 다수 위원들의 50bp 금리인상 언급과 대내적 추경 편성 이슈가 국채 시장 약세를 견인하며 국고채 금리 급등세 시현
 - 이어 우크라이나 전황이 협상의 합의 도출 기대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완화된 점이 국고채 시장 강세 요인으로 작용한 가운데 하락 추세 전환하다 추경 경계감 등으로 소폭 되돌림 되며 마감

주요 시장금리 추이



자료: 하나은행, 단위 %

4 월 전망

연준의 매파 성향 지속, 시장의 50bp 금리인상 기대의 선반영은 당분간 지속하며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다만, 경기 재침체 우려 속 한은의 성장 기조 전환 기대 등이 상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평균	1Q22	2Q22	3Q22	4Q22
국고채(3y, %)	2.23	2.75 ^(F)	2.85 ^(F)	2.95 ^(F)

국내 무역수지 적자 흐름 지속 하에서 성장 중심 기조의 차기 한은 총재 성향 등에 대해 시장은 국고채 금리의 상단이 제한될 수 있는 측면을 부각할 전망이다

연준내 50bp 금리인상에 대한 매파적 스탠스 지속은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국고채 금리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4월 국고채(3Y) 금리는 2.60%-2.80%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국내 지연 전이 영향 속 고유가 지속 전망 등에 따른 대외 거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차기 한은 총재의 완화적 정책에 대한 시장 기대의 선반영 등도 금리 상단 제한할 것으로 예상

 -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이 국내에 상대적 지연 영향 미치며 이에 따른 내수 침체와 동유럽 전쟁 지속의 고유가 흐름이 국내 경상수지 부진 등의 경제 체질에 부정적 영향으로 예상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을 다소 높이는 형국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 이는 한은 총재 내정자의 성장 중심 정책 기조에 무게를 실어줄 요인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연내 추가 금리인상 횟수 조정에 대한 기대 선반영 등으로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
- 미국내 인플레이션이 국제 공급망 충격 지속 등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가며 5월 연준 통화정책이 상당히 강한 긴축이 될 것이라 기대는 국내외 주요 국채금리의 주 상승 요인이 될 전망이다

 - 미국의 CPI가 연속적으로 고공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고용시장의 상황이 완전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함에도 PCE물가 역시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형국. 이는 낮은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지속됨에도 에너지 가격 등의 대외 공급 충격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
 - 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감을 강하게 나타내는 연준의 가파른 금리인상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할 요인으로 국내외 국채시장은 이를 크게 반영하면서 약세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임
- 대외 인플레이션이 총수요 억제에 부정적으로 작용, 경기침체 여건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은 금리 상승 제한에 영향을 미칠 요인. 반면, 대내적 추경 편성 이슈는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가운데 상존한 대내외 불확실성 등을 반영하며 소폭 상승 우위 흐름 예상

 - 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금리차 역전이 총수요 억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 부각될 수 있는 점은 금리 상단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
 - 반면, 대내적으로 추경 편성 이슈의 확대는 금리 상승에 영향을 미칠 요인 속에 여전히 지금까지 상존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고채 금리는 소폭 상승 흐름 보일 전망이다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준의 5월 FOMC에서의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확대 • 인플레이션 고공 행진 지속 • 대내적 추경 편성 관련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내적 대외 거래 수지 악화 등에 따른 국내 경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 • 미 국채 수익률 역전 가능성 등에 의한 경기 침체 가능성 점증 우려

자료: 하나은행

달러/원 환율

3 월
동향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 기대에도 장기전화 양상 속,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대와 연준의 강력한 긴축 가능성 점증 등으로 1,220원대 전후 흐름

동유량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위험회피 영향이 크게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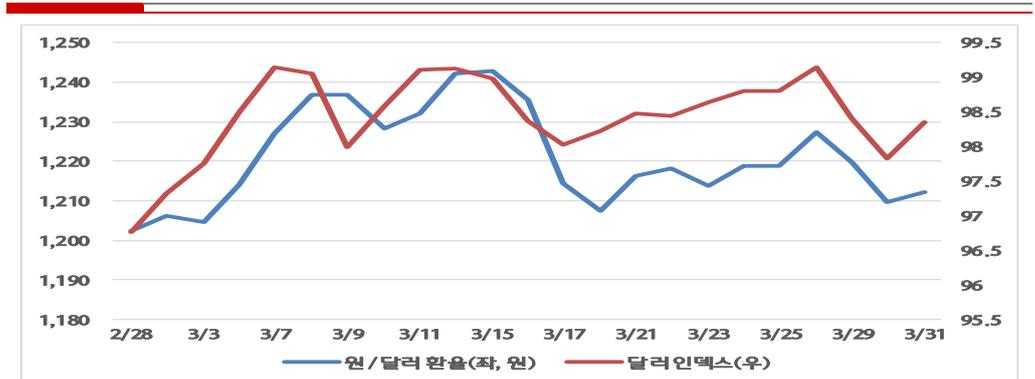
유가 급등 등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확실성 확대 속에 중국 코로나 확산 위기 등이 위험회피 심리에 지속적 영향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기대 등이 상존한 가운데 미국에서의 비축유 공급 등에 따라 유가 안정이 환율 소폭 하락에 영향

- 월초,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이후,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속 유가 급등이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 다만 연준 의장의 의회연설에서의 25bp 인상 지지 발언 등이 위험회피 심리를 다소 완화하는데 영향을 미침
 - 월초, 우크라이나의 전쟁 양상 확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 속에 러시아에 대한 서방 제재 등으로 국제 유가 상승세가 급등 양상 보임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강화 등으로 상승
 - 이어, 연준의장이 의회 연설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고려하는 가운데에서도 금리인상 폭을 25bp 단행하는 완화적 긴축 언급 등이 다소 시장에 안정감을 준 점은 환율 상단을 제한
- 월 중반, 전쟁 관련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세계 경기 불확실성 증폭으로 달러 강세 보인 가운데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도 위험회피에 영향을 미치는 모습. 이후 중국 당국의 시장안정 조치 속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협상 소식 등으로 지정학적위험 완화되며 1,200원대 초반 양상
 - 중반, 서방의 강력한 러시아 제재 속에 러시아 파산 위험 확대 등이 불확실성을 키운 가운데 중국에서의 코로나 봉쇄 조치 등도 위험회피 강화에 영향을 미치며 상승 추세에 영향
 - 이후, 중국 당국의 코로나 관련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안정조치와 러시아-우크라이나간 협상 논의 진전 기대 속 연준의 25bp 금리인상이 불확실성 해소로 다소 인식되며 1,200원 초반 흐름
- 후반,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달 가량 지속되며 유가 급등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이어졌고, 미 국채금리가 한 때 2% 중반 상회. 이에 연준의 강한 긴축 시그널이 강화되며 1,220원을 상회 후, 미 비축유 공급 등에 따른 유가 하락, 분기 네고물량 출회 등으로 1,210원대 마감
 - 후반,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전화 가능성 속에 협상의 진전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상황이 지속. 이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플레 상승세 이어지며 연준의 강한 긴축 시그널 지속으로 달러 강세 흐름
 - 여기에 미 국채금리가 2% 중반을 넘어선 측면도 달러 강세 견인하였으나, 미국의 유가 안정 위한 비축유 공급과 우크라이나 평화협정 기대 등이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 등으로 1,210원대에서 환율 마감

3월 달러/원 평균환율 : 1,121.9
3월말 달러/원 환율 : 1,212.1

달러/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지수 추이



자료: 하나은행

4 월 전망

전쟁 불확실성은 여전히 상존할 전망이나 변동성 민감도는 다소 약화 예상 속 추점은 연준의 강한 긴축으로 점차 전환하는 측면으로 여전히 이 영향이 달러 강세를 견인하는 요인이 될 전망

평균	1Q22	2Q22	3Q22	4Q22
달러/원 환율(원)	1,205.7	1,200 ^(F)	1,190 ^(F)	1,185 ^(F)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겠지만 그에 대한 민감도는 다소 약화가 예상

- 우크라이나 전쟁 협상 진전 기대에도 예상외 장기화 가능성 등 전쟁 시나리오에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측면이 전쟁 격화 시점에서 강달러 견인하겠으나 그 영향은 다소 약화 예상
 -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협상 기대에도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요 전쟁 격화 시점에서는 변동성이 확대되며 강달러 견인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변수임을 여전히 배제하지 못할 전망
 - 또한,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따른 유가 상승이 다소 완화되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럽 경제 지표가 부진을 보이면서 ECB의 긴축 속도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 유로 약세를 통해 달러 강세 지지할 것으로 예상

연준의 5월 FOMC에 대한 위원들의 50bp 인상 가능성 언급 등을 시장이 선반영하는 가운데 달러 강세 영향으로 반영될 듯

- 3월 FOMC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 양상에 50bp 인상 가능성을 연일 시사하는 매파적 연준 스탠스가 4월 금리 결정 전까지 이어지며 시장 경계감과 변동성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최근 미국내 인플레이션 급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3월 FOMC 결과의 불확실성 해소 인식에도 다소 매파적이었던 평가. 여기에 잇단 주요 연은 총재들의 인플레 대응 50bp 인상 발언으로 예상보다 빠른 긴축이 있을 것이라 시장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주요하게 달러 강세를 견인할 전망
 - 다만, 최근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장단기 국채금리의 역전 가능성을 이끈 상황이 다소 경기침체 우려를 부각함에 따라 이 점을 연준이 광범위하게 고려할 경우 여전히 완화적 긴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 예상이 탄력을 받고 있는 점은 달러 강세를 제한할 요인으로 예상

4월 달러/원 환율
1,200 ~1,230원 변동 예상

- 국제유가 상승이 대내적 무역수지에 부정적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 될 전망 속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이 수급상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또한 신임 한은 총재 내정자의 성장 중심 통화정책 전망에 따른 연내 금리인상 횟수 축소 가능성도 약세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동유럽 전쟁 지속 상황에서 국제유가 상승추세가 유효한 상황이 연초 이후 대내적 무역수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계절적 외국인 역송금 수요 등이 수급상 원화 약세에 영향을 미칠 전망
 - 여기에 신임 한은 총재 내정자가 성장 중심의 통화정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준금리 인상 횟수가 다소 축소될 수 있다는 기대도 원화 약세 요인으로 주요하게 작용할 전망

상승 요인 vs. 하락 요인

상승요인	하락요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크라이나 협상 기대에도 전쟁 격화 시점 등에서는 여전히 높은 변동성 예상 · 연준의 상당히 매파적 스탠스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 침체 우려의 부각 고려 시 연준 스탠스가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측면

자료: 하나은행

이종통화

엔/원 전망

3월 달러/엔 평균환율 : 118.6
3월 엔/원 평균환율 : 1,029.5

4월 엔/원 예상범위 : 1,010~975

연준의 강한 긴축 가능성, BOJ의 완화적 스탠스에 따른 정책 차별화에 전반적 엔화 약세 예상. 원화도 연준 정책 반영 등으로 약세 흐름 예상되나 엔화에는 상대적 강세 예상으로 엔/원 소폭 하락 전망

- (동향) 인플레이션궤 연준 예정 통화정책에 의한 미 국채금리 상승 반영 속 출발. 여기에 우크라이나 핵시설 타격 등 전쟁 격화도 엔화 약세 지지. 중반, 전쟁 이슈에 의한 유가 등락이 엔화 방향성에 영향을 미친 영국 속 FOMC의 매파적 결과와 BOJ의 완화적 기조 등으로 약세 심화하는 모습. 후반에도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시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BOJ의 수익률곡선 통제 정책 등으로 122엔을 상회하는 초약세 시현. 엔/원 환율은 일본 BOJ의 강한 완화적 기조 영향이 엔화의 초약세를 견인한 가운데 900원대 후반까지 진입
- (엔/원 전망) 우크라이나-러시아간 긍정적 협상 진전이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측면이 일본 경제의 모멘텀을 강화하며 엔화 강세 지지 요인. 그러나 연준의 강한 금리인상 기조 속에 BOJ의 YCC 강화 정책 고수 등에 따른 통화완화 지속 의지 등 미-일 통화정책 차별화 요인에 따라 엔화는 전고점 전후 등락의 약세 기조 이어질 것으로 예상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 등으로 유가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측면은 일본 경제 체질 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 그러나, 연준의 강한 긴축 가능성 대비 BOJ의 YCC 정책 고수 등 완화적 기조 유지 등 정책 차별화 요인이 엔화 약세를 주요하게 견인할 전망 예상. 엔/원은 BOJ의 통화 완화 영향이 상대적 엔 약세 견인하며 추가 하락 가능성 있으나 BOJ 개입 경계감 등이 추가 하락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유로/원 전망

3월 유로/달러 평균환율 : 1.1017
3월 유로/원 평균환율 : 1,345.3

4월 유로/원 예상범위 : 1,330~1,345

독일의 높은 인플레이션 상승에도 전쟁 영향 등으로 ECB의 완화정책 지속되며 유로 약세 예상. 유로/원은 원화도 연준 통화정책에 따른 달러 강세 영향 반영되겠지만 상대적으로 유로보다 강세 나타낼 전망

- (동향)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험 고조 속 러시아 원유 수출 제한 등에 따른 유로 경기 둔화에 하락 출발. 이어 외교적 해법 기대와 ECB의 물가 안정 조치 표명에 일시 강세 시현. 중반, 전쟁 당사자간 협상 전개가 이어지며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강세 전환. FOMC의 불확실성 해소 인식과 러시아의 파산위험 모면 등도 강세에 영향. 후반, 유가 재급등 속 연준 매파 스탠스, 독일 지표 부진 등으로 약세 나타내다, 5차 휴전 협상의 긍정적 진전 등으로 강세 전환
- (유로/원 전망) 높은 국제유가 지속 가능성, 인플레 급등에 따른 매파적 FOMC 전망 등이 유로화에 주요 약세 요인 전망. 여기에 ECB의 경기 불확실성 해소 위한 긴축 속도 조절 기대도 약세 요인이나 우크라이나 협상 진전 기대가 확산하는 점은 유로 강세 요인으로 판단
 - 우크라이나 전쟁의 협상 타결 기대 등이 유로 강세 요인이나 여전히 불확실성 상존한 가운데 높은 수준 국제유가 지속 등에 따른 유로 경제 위험 증폭과 이에 대응한 ECB의 긴축 기조 완화 등이 유로 약세 견인할 전망. 유로/원 환율은 동유럽 전쟁 이슈 지속, 연준의 강한 긴축 영향 등에 따른 유로화의 상대적 약세 예상되나 원화도 연준 영향 등을 고려 시 1,340원 전후 등락 예상

국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일정(2022년 4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2
*주: 1.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P]-잠정치, [F]-확정치, [SA]-계절조정, [A]-예고치, (O)안은 이전치					한 3월 수출/수입(20.6%/25.1%, YoY) 3월 무역수지(\$841M) 유 3월 CPI(0.9% MoM, 2.7% YoY) 일 3월 지분 은행 PMI 제조업(F)(53.2) 중 3월 Caixin 제조업 PMI(50.4)	미 3월 건설지출(1.3%, MoM) 3월 ISM 제조업지수(58.6)/ISM 고용(54.5) 3월 ISM New Orders(61.7) 3월 ISM 구매량지수(75.6) 3월 시간당 평균 임금(0.0% MoM, 5.1% YoY) 3월 경제활동참가율(62.3%) 3월 실업률(7.2%)
3	4	5 RBA 통화정책회의	6	7 FOMC 회의록 공개	8	9
	미 2월 제조업수주(1.4%) / 내구재주문 유 4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7) 일 3월 본원통화(7.6%, YoY) 독 2월 수출/수입(-2.8%/-4.2%, MoM)	한 3월 외환보유고(\$461.77b) 3월 CPI(0.6% MoM, 3.7% YoY) 미 3월 ISM 서비스지수(56.5) 2월 무역수지(-\$89.7b) 일 2월 노동자 현금수입(0.9%, YoY) 2월 실질 임금총액(0.4%, YoY) 2월 가계 소비지출(6.9%, YoY) 일 3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48.7)/종합(49.3) 호 4월 RBA 기준금리(0.10%)	유 2월 PPI(5.2% MoM, 30.6% YoY) 중 3월 Caixin 종합 PMI(50.1)/서비스 PMI(50.2) 독 2월 공장수주(1.8% MoM, 7.3% YoY)	미 3월 FOMC 회의록 공개 유 2월 소매판매(0.2% MoM, 7.8%, YoY) 일 3월 도쿄 평균 사무실 공실률(6.41) 중 3월 외환보유고(\$3213.83b) 독 2월 산업생산(2.7% MoM, 1.8% YoY) ECB Publishes Account of March Monetary Policy Meeting	한 2월 BoP 경상수지, 상품수지 미 2월 소비자신용지수(\$6.838b) 2월 도매무역 판매(4.0%, MoM)	중 3월 신규 위안화 대출 CNY(1230.0b) 3월 통화공급 M0(5.8%, YoY) 3월 통화공급 M1(4.7%, YoY) 3월 통화공급 M2(9.2%, YoY)
10	11	12	13	14 韓 금통위, ECB 통화정책회의	15	16
	중 3월 PPI(8.8% YoY) 3월 CPI(0.9% YoY) 독 3월 도매물가지수(1.7% MoM, 16.6% YoY) BOJ Governor Kuroda Speech at the Branch Managers Meeting	한 2월 통화공급 L(0.7%, MoM) 2월 통화공급 M2(0.9%, MoM) 미 3월 NFB 소기업 낙관지수(95.7) 3월 CPI(0.8% MoM, 7.9% YoY) 3월 실질 평균 시간당 임금(-2.6%, YoY) 3월 주간 평균 실질 소득(-2.3%, YoY) 유 4월 ZEW 서베이 예상(-38.7) 일 3월 PPI(0.8% MoM, 9.3% YoY) 독 4월 ZEW 서베이 예상(-39.3)	한 3월 실업률(2.7%) 미 3월 월간 재정수지(-\$216.6b) 3월 PPI(0.8% MoM, 10.0% YoY) 유 2월 산업생산(0.0% MoM, -1.3% YoY) 일 3월 통화량 M2(3.6%, YoY), M3(3.2%, YoY) 2월 핵심가계 수주(-2.0% MoM, 61.3% YoY) 한 3월 수출(20.9% YoY) 3월 수입(19.5% YoY)	한 4월 BoK 7일 Repo 금리(1.25%) 3월 수출물가지수(2.1% MoM, 20.3% YoY) 3월 수입물가지수(3.5% MoM, 29.4% YoY) 유 4월 ECB 단기금리(-0.5%) 4월 ECB 마진 대출 파실리티(0.25%) 4월 ECB 주요 채용자금리(0.0%) ECB President Christine Lagarde Holds Press Conference	미 3월 수출물가지수(3.0% MoM, 16.6% YoY) 3월 수입물가지수(1.4% MoM, 10.9% YoY) 3월 소매판매(0.2% MoM) 2월 기업채(1.1%)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3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일 3월 전국 백화점 판매(-0.7% YoY) 3월 도쿄 백화점 판매(5.1% YoY)	미 3월 광공업생산(0.5% MoM) 3월 설비가동률(77.6%) 3월 제조업(SIC) 생산(1.2%)
17	18	19	20	21 美 Beige Book 발표	22	23
	미 4월 NAHB 주택시장지수(79) 중 3월 광공업생산(4.3% MoM) 3월 소매판매(1.7% YoY)	미 3월 주택착공건수(6.8% MoM) 3월 건축허가(-1.9% MoM) 일 2월 설비가동률(-3.2% MoM)	미 3월 기준주택판매(-7.2%, MoM) 일 3월 수출(19.1% YoY) / 수입(34.0% YoY) 중 1년 위안화 대출금리(3.70%) 5년 위안화 대출금리(4.60%) 독 3월 PPI(1.4% MoM, 25.9% YoY) ECB Survey of Professional Forecasters	한 3월 PPI(8.4% YoY) 4월 수출 20일(10.1% YoY) 4월 수입 20일(18.9% YoY) 미 4월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27.4) 3월 섀넥스(0.3%) 유 2월 건설생산(3.9% MoM, 4.1% YoY) 중 3월 SWIFT CNY 국제결제비중(2.23%) U.S. Federal Reserve Releases Beige Book	일 3월 전국 CPI(0.9% YoY) 3월 지분은행 PMI 서비스/종합/제조업	독 3월 수입물가지수(1.3% MoM, 26.3% YoY)
24	25	26	27	28 BOJ 통화정책회의	29	30
	한 3월 소매판매(4.7% YoY) 3월 백화점 매출(9.3% YoY) 3월 할인점 매출(-24.0% YoY) 미 3월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0.51) 4월 델타스 연준 제조업 활동(8.7) 일 3월 PPI 서비스(1.1% YoY) 독 4월 IFO 기업활황지수(90.8)	미 2월 FNAF 주택가격지수(1.6%, MoM)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107.2) 3월 신규주택판매(-2.0%), MoM) 4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기대지수(76.6) 4월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13) 일 3월 실업률(2.7%) 3월 유효구인배율(1.21)	한 4월 소비자심리지수(103.2) 미 3월 미경주판매(-4.1%, MoM) 중 3월 산업생산(4.2% MoM) 독 3월 GfK 소비자 기대지수(-15.5)	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 제조업/비제조업 미 1Q GDP 물가지수 / GDP 연간화 QoQ 1Q 개인소비 유 4월 경기/산업/서비스/소비자 기대지수 일 4월 일본은행 정책금리(-0.1%) 4월 일본은행 10년 수익률 목표(0.0%) 3월 소매판매(-0.8% YoY) ECB Publishes Economic Bulletin	미 4월 미시간대 소비자신뢰, 경기현황 4월 미시간대 소비자기대, 1년 인플레이션 4월 캔자스시 제조업활동 3월 개인소득, 개인소비지수, 실질 개인소비 3월 PCE 디플레이터 유 3월 M3 통화공급(6.3%, YoY) 중 4월 차이신 중국 PMI 제조업	중 4월 종합/제조업/서비스업 PMI

본 자료는 현 경제상황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기초 자료입니다. 따라서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정확성 등을 보증한 것은 아니며, 자료에 나타난 의견이나 전망치는 향후 예고없이 당행의 판단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당행의 저작물이며 사전의 승인 없이 본 자료의 전체 혹은 일부를 인용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자료는 하나은행 외환포털(<http://fx.kebhana.com>) → 환율 → 외환시장동향 → 월별금리환율예측자료)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